

아트선재센터, '커넥트 1: 스틸 액츠' 전시회 개최

August 25, 2016 | 김지만 기자

page 1 of 2



▲ '커넥트 1: 스틸 액츠' 전시 전경<사진제공=김상태>

아트선재센터가 오는 27일부터 11월 20일까지 '커넥트 1: 스틸 액츠(Connect 1: Still Acts)'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종로구 소격동에 위치한 아트선재센터 본관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지난 1995년 아트선재센터의 옛 터에서 열린 첫 전시 '쌩'에서 출발해 1998년 정식 개관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간 아트선재센터의 여정을 현재화 하려는 시도로 기획된 '커넥트(Connect)' 시리즈의 첫 번째 전시회다.

아트선재센터의 역사와 소장작품에 대한 연구인 이번 '커넥트' 시리즈에는 김소라, 이불, 정서영 그리고 뮤지엄 그룹 작가들이 참여한다.

'커넥트 1: 스틸 액츠'는 세 명의 작가 개인전을 통해 지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아트선재센터에서 선보였던 활동을 살펴본다.

아트선재센터는 개관 이래 미술관 시설 보수를 위해 두 차례 휴관했는데 첫 번째는 지난 2005년부터 2006년 가을까지, 두 번째는 지난해 겨울부터 올해 여름까지다.

그 첫 번째 '정지' 이전의 시기를 다루고자 기획된 이번 전시회는 개인전을 중심으로 작업 커미션을 통해 작가들의 새로운 작업을 소개하고 소장하는 일을 진행해 온 아트선재센터의 활동을 돌아본다.

'커넥트 1: 스틸 액츠'에서 김소라, 이불, 그리고 정서영 세 작가의 전시가 아트선재센터 1층부터 3층까지 각층에서 열린다.

아트선재센터 1층에는 지난 2004년 '안타르티카'에서 선보였던 김소라의 '라이브러리 프로젝트(2004)'가 새롭게 구현되며 이에 따른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진행된다.

2층에는 지난 2000년 정서영의 개인전 '전망대'에서 보여졌던 세 개의 작업 '전망대(1999)', '꽃(1999)', '수위실(2000)'이 그대로 놓이는 한편 새로운 작업이 함께 보여진다.

3층에는 지난 1998년 아트선재센터의 첫 번째 개인전 '이불'에서 보여졌던 '사이보그 시리즈(1998)'와 90년대 이후 미술관에서 전시되기 어려웠던 '장엄한 광채(2016)'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설치된다.

이밖에 80년대 말 이불 작가가 소속돼 활동했던 '뮤지움' 그룹의 강홍구, 고낙범, 나카무라 마사토, 샌정(정승), 세스 프랭클린 스나이더 등의 작업을 포함시킴으로써 초기 작업의 컨텍스트를 드러내고 앞으로 있을 '뮤지움' 전시의 예고편을 마련한다.

한편, 이 세 명의 작가들은 여성 작가라는 공통점 외에 각기 그 시대의 동시대성을 고민하고 저마다의 미학적 언어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던 작가들로 이들의 90년대 말부터 2000년 초반까지의 주요 작업들을 다시금 살펴보고 미술관의 소장품이 된 과거의 작업과 전시를 그대로 재현하고 화석화하기 보다는 새로운 읽기와 재맥락화로 현재화하고 또 다른 미래의 논의의 장을 열고자 한다.